건강한 라미란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33호 1판 (음력 5월 11일)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총선 후 한 발짝도 못 나간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정치권·자치구·지방의원 이해관계 얽히고 설켜 기획단 구성·용역발주 못해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광주시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중이지만, 자치구별로 의견이 다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한 뒤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까지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역 발주는 물론 구간 경계조정 논의를 위한 기획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지방의원들이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간 경계조정은 지난해 4·13 총선 이후 국민의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구가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져 조직·재정 축소가 현실화되는 등 자치구간 불균형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8석의 의석수 유지를 위해 일부 행정동(洞)이 다른 구로 편입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4·13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동구가 남구 6개 동(洞)과 합쳐져 동남을 선거구가 등장하고, 인구가 많은 북구을 선거구 일부 동(洞)이 북구갑 선거구로 옮겨가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총선 이후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광주시도 자치구별 의견 수렴과 용역발주 등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각 구청장들은 지역별 특색을 주장하며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는 단순히 인구를 주고 받거나 토지와 대로, 하천 등 지형만을 고려한 단순한 경계조정은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동의와 주민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자치구의 주장에 대해 동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자치구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앞서 시청과 시의회, 구청, 구의회, 학계, 언론계 등을 아우르는 기획단을 구성해 구간 경계조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등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기획단 인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기획단 구성도 현재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기획단 인사를 추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추천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 간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질 경우 시의원 선거구 일부가 통폐합 되거나 일부 행정동이 다른 자치구로 조정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간 경계조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간 경계조정을 광주시 주도로 추진할 경우 의회나 정치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에 앞서 광주시·자치구·정치권·학계·언론계 등이 모두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광주시의회에서 기획단 인원 추천에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 내리는 캠퍼스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북상으로 광주·전남지역에 간헐적으로 비가 내린 3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을 한 학생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유한국당 새 대표 홍준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상진, 원유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관련기사 4면〉

홍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5만1891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원유철, 신상진 후보 순이었다. 홍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4만194표, 여론조사에서는 1만1697표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검찰총장 후보 4명 추천 법무부 추천위원회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조직을 이끌어나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3일, 현직으로는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강원 양양)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충남 예산) 의정부지검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전남 순천) 농협대 석좌교수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20기) 차관에게 추천했다.

문 고검장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특수통'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대검이 꾸린 특별수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 고검장은 '공안통'이면서도 대검 대변인을 거쳐 대검 기획조정부장, 반부패부장을 역임하면서 기획·범죄정보·특수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는 평을 받는다.

조 지검장은 국내 첫 여성 검사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과장, 차장검사(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장) 등을 거치며 가는 곳마다 '여성 1호' 기록을 만들어왔다.

소 교수는 법무부 검찰과장·정책기획단장을 거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형사부장 등 검찰·법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산자 백운규·복지 박능후·방통 이효성·금융 최종구

17부처 장관 인선 마무리 일자리수석에 반장식 경제수석 홍장표 임명

백운규 산자

박능후 복지

이효성 방통

최종구 금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하며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또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 아울러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는 반장식(6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는 홍장표(57)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프로필 2면〉

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통상자원 2차관 인선만 남았다. '8수석·2보좌관·2차장'의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됐다.

백운규 장관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 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 산업·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한 학자로, 현장에 대한 식견이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등 새 정부의 방통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재정 분야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조정 능력과 학계에서 연구활동으로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일자리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토대로 새 정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능후·이효성 후보자는 각각 1988·1994년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한 건씩 있다"며 "부동산 투기용인지, 불가피한 위반인지는 본인들이 해명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